

## News

### 빚투 차단 위한 DSR 규제, 부처간 엇박자로 오리무중

파이낸셜뉴스

DSR 규제 강화 방안이 부처간 엇박자로 실행 시기가 지연... 금융당국은 현재 DSR 40% 규제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 금융위와 금감원도 DSR을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모습....

### 윤석현 "금융사 배당제한 제도화, 금융위와 상의"

서울파이낸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배당제한 제도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상의하겠다고 밝혀... "코로나19 상황에서 배당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일차적인 이슈".... "금융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 금융위와 상의하겠다"

### 하나금융, 3분기 누적순익 2.1조... "비은행 부문 약진"

뉴시스

하나금융그룹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2조1061억원을 달성... 비은행 계열사의 선전 덕분에 업계 예상을 웃도는 수치 발표... 코로나19를 반영한 미래 전망정보를 보수적으로 재평가해 대손충당금 580억원을 추가로 인식... 그룹 순이자마진은 전분기 대비 0.04%포인트 내려간 1.58%로 집계

### 농협은행, 11번가와 마이데이터 사업 벌인다

한국경제

농협은행과 11번가가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금융과 유통 데이터를 결합해 혁신적 서비스 개발 목표.... 양사는 이중 데이터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적극 추진... 두 회사는 각 플랫폼을 통해 공동 마케팅도 펼치기로...

### 보험사 외화보험 환위험 간과... 원화값 급변동때 큰손실 우려

매일경제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늘자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 최근 들어 외화보험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 문제는 외화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점...

### 은성수 "보험사들, 증자로 자기자본 늘려야"

더퍼블릭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IFRS17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가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밝혀...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에 대비해 후순위채 등을 발행해 자본확충 중지만... 후순위채는 향후 자기자본에서 제외해야 하는 관계로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 증권업계, 금감원의 '증권사 CEO 중징계' 불만 고조

한국금융

라임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칼날이 증권사를 겨누고 있는 가운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금감원은 지난 6일 판매사 3곳에 CEO 중징계 등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보내... 이번 사태의 책임을 판매사에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 빚투' 주식 신용융자 16.4조 '사상 최고'... 청년층 급증·씨젠 1위

뉴스1

지난 9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신용융자 잔고는 16조4000억원으로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 특히 만 30세 미만 청년층의 신용융자 증가율이 높아... "대출 등을 이용한 투자는 개인의 상환능력 및 생활비, 교육비 등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